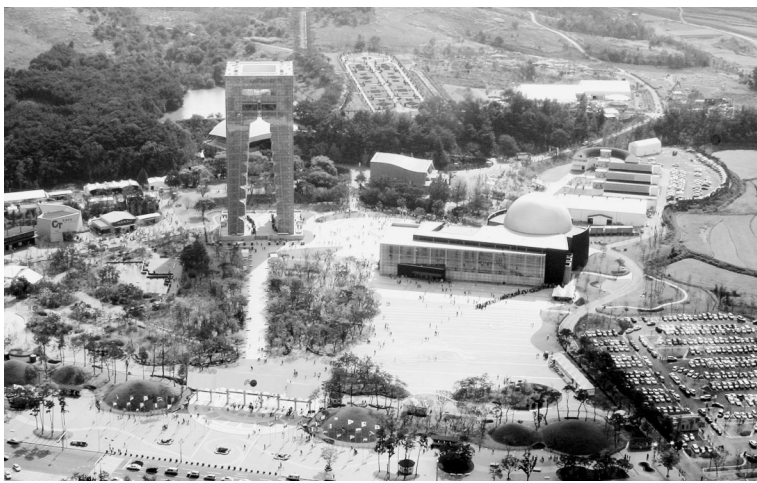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달뒤 ‘팡파르’

8월12일~10월10일 44개국 세계문화 경주 총집결

공연 영상 전시 분야 ‘팔도+지구촌’ 체험거리 풍성



‘시공을 초월한 천년의 이야기...’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6회를 맞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는 8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 60일 동안 44개국이 참가해 ‘천년의 이야기·사랑, 빛 그리고 자연’이라는 주제로 59만㎡(18만평)에 달하는 경주엑스포공원과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 ‘천년의 이야기’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천년의 신라가 이후 천년을 풍요롭게 했듯이 신라인들의 이야기와 지혜를 통해 앞으로의 천년을 상상하고, 비전을 창조하는 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정해졌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공식행사 ▲공연 ▲영상 ▲전시 등 크게 4개 부문에서 20여개 핵심콘텐츠와 100여개 단위행사로 짜여진다.

특별행사로 △스페셜 데이 △부대행사 △경주시가지축제 △연계행사 등 20여 가지가 함께 추진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는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편의를 돕고자 기반시설을 비롯한 휴게·편의·조경시설을 예년 보다 크게 확충했다.

조직위는 이달 말까지 행사장 공사과 전시, 공연장 준비 등을 완료하고 내달 초부터 리허설에 들어가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엑스포를 홍보하고 엑스포 열기를 고조시킬 대대적인 ‘개막 D-30 이벤트’를 마련한다.

다음달 3일에는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홍 경북도지사가 직접 엑스포공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총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볼거리는 ◇

▲공식행사는 개막제, 폐막제, 내고장 문화한마당(전국 14개 광역시도 및 23개 경북 시군 참여)이 개최된다.

▲공연부문에는 난타와 점프를

연출한 난버벌 퍼포먼스의 거장 최철기 사단이 참여한 ‘무언어퓨전술 총체극’인 ‘주제공연(플라이 : Flying)’, 정동국장이 만든 오리지널 한국뮤지컬 ‘기획공연(미소Ⅱ-신국의 땅, 신라)’, 세계 공연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세계 춤 페스티벌’ 등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영상부문에는 한국 입체영화 사상 최초로 애니메이션에 실제 배우가 출연하는 ‘주제영상(벽투천 : 碧淚劍)’, 신라의 달밤을 마법으로 물들일 상상을 초월한 ‘경주타워 멀티미디어 쇼’가 진행된다.

▲전시부문은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편의 서사시를 보는 듯 신비롭고 흥미진진하게 꾸민 ‘주제전시(천년의 이야기)’, 나라마다 특색 있는 민속의상을 입은 인형들과 함께 세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세계민속인형전’, 세계전통문화관, 세계화석박물관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스페셜 데이는 개막제인 스타트 세리머니(8월11일), 스페셜 이벤트(8월27일), 한가위 한마당(9월12일), 하이라이트 스테이지(9월24일) 등으로 장기간 열리는 엑스포 60일을 네 등분해 네 번의 시의상대형이벤트를 벌여 행사 분위기를 띄우게 된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세계품물광장, 신라복식체험, 소원지 탐 만들기, 귀고(도깨비 다리) 만들기,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가 마련된다.

엑스포 기간 경주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경주시가지축제에는 야간특별공연, 거리공연, 거리미술클, 사진전, 전통문화체험, 다문화축제, 전국 화랑태권무 경연대회 가 준비된다.

△연계행사로 세계 불교관련 단체와 한국불교계가 참여해 신라 불교문화를 재조명하는 ‘세계불교문화대제전’, 러시아 중국 필리핀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를 묶은 ‘월드베스트 서커스’, 고건축 모형물전,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쏙쏙하게 치러진다.

◇ 입장권에 숨은 혜택이 ◇

입장권은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이다. 20명이상



단체나 8월7일까지 예매하면 20% 이상 할인받아 성인은 1만2천원, 청소년은 8천원, 어린이는 6천원이다. 예매권의 경우 20매 이상을 구매하면 15%가량 추가 할인돼 성인 1만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5천원에 살 수 있다.

입장권 1장이면 엑스포의 공연·입체영화·경주타워 멀티미디어 쇼·전시 등을 추가요금 없이 관람할 수 있다.(기획공연, 월드베스트 서커스는 유료)

또 행사기간 엑스포 입장권을 소지하면 경주월드(20~50%), 캘리포니아비치(40%), 테디베어박물관(20%), 한화리조트(40%), 콩코드 호텔(40~50%), 교육문화회관(50%) 등 경주지역 일부 테마파크 및 호텔콘도 이용요금도 할인된다.

입장권 예매는 농협(nonghyup.com)과 하나투어(hanatour.com) 전국 각 지점, 티켓링크(ticketlink.co.kr), 경주세계문화엑스포(cultureexpo.or.kr), 대구은행 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전화예매(1588-7890)도 가능하다. 문의 :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팀(054-740-3062)

◇ 기대효과 ◇

1998년부터 5회에 걸쳐 모두 838만 명의 입장객을 불러 모은 경주엑스포는 올해 행사의 예상 관람객을 150만 명, 수입액은 100억 원으로 잡았다. 조직위는 KTX 신경주역 활성화 시점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27일부터9월 4일까지),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10.8~10.14) 등 국제행사와 연계 개최해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시너지효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년2월)은 2011경주엑스포 개최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를 생산유발 6천339억원, 소득유발 2천62억원, 고용유발 8천48명, 부가가치유발 3천428억원, 간접세유발 554억원으로 경제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주의 문화·역사자원의 부가 가치를 극대화 해 제작하는 주제영상·주제전시·주제공연·멀티미디어쇼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한 지

역관광산업 발전도 기대된다.

특히 조직위는 경주, 경북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와 세계문화를 연결시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한다는 경주엑스포의 정체성 재정립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눈에 띄는 점은 ◇

올해 엑스포는 내용이나 규모,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고이며 5회 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가 총결집됐다.

가장 큰 특징은 천년 신라문화에 국내 최초의 첨단 문화기술(CT)들을 대거 도입시켰다는 것. 입체영화 ‘벽투천’은 한류스타 김성훈(배우 겸 가수)과 충무로 명품배우 윤소이, 국민언니 하유미 등이 실제 출연하는 실사(寫實)를 접목한 3D애니메이션이다.

국내기술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영상으로 한국 문화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유명배우의 캐스팅으로 해외수출 등 상품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주의 랜드마크인 경주타워를 배경으로 하는 ‘경주타워 멀티미디어 쇼’는 세계 최대규모의 ‘3D 옵티컬아트 빌딩 프로젝트션 맵핑(착시효과를 활용한 광학적 미술) 기법’으로 연출해 경주타워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상적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KTX 신경주역 개통에 따른 관광시장 업그레이드에 부응하기 위해 경주시가지 전역으로의 행사장을 광역화했다.

KBS전국노래자랑, 시내 야간특별공연, 거리이벤트, 경주시립극단 공연 등 ‘경주시가지축제’가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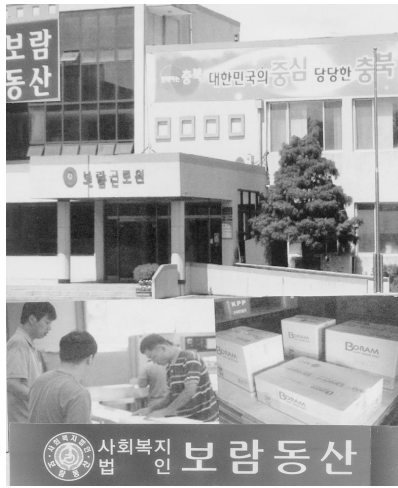
바로 잡습니다

7월 11일자 8면에 게재된 윤호환원 김병일 이사장은 서원학원 이사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업/체/탐/방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을 찾아서

김광홍 이사장 “장애인과 함께 하니 보람 있다”



김 광 홍
이사장

직자 출신으로서 필자와는 평소 형님 동생하면서 가까이 지낸 사이다.

김광홍 이사장이 수시로 지방 일간지에 칼럼을 게재하는 것을 보고 복지법인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사장실을 노크 한 것이다.

정문에 들어서자 마주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친절함 웃음으로 ‘안녕 하세요’라고 반갑게 방문객을 맞이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처음 방문객에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곳은 언론생활 45년 만에 처음 느껴 보는 것이다.

이같이 사회 곳곳에서 친절이 묻어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필자가 방문한 시간은 지난 7일 오후 3시경.이사장과 원장은 마침 출장 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총무담당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김광홍 이사장의 인부를 물었다. 총무과 담당자는 역시 친절하게 각종 홍보물을 챙겨 주면서 다녀가셨다고 전해 주겠다고 했다.

필자가 도청을 출입할 때 김광홍 이사장은 정부 부지사와 충북도립 대학장을 지낸 엘리트 공

(18개 품목)과 비품에 대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데 이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후생복지에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지 1,000㎡에 건물 1,139.88㎡로 아담하게 자리 잡은 보람동산에서는 계속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전화 043-214-2271~2, 043-214-2336~7, Fax 043-214-2338)하고 있는데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3항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제5대 이사장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김광홍 이사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밥과 반찬도 해먹고 식사준비와 설거지도 스스로 척척 저화들 끼리 하는 것을 보면 대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여름 캠프, 추석명절, 대청호 마라톤, 청원 생명장 축제, 수암골, 제빵왕 김탁구, 독립기념관, 에버랜드, 토지·도에체험 등을 실시 해 주고 있다면서 해마다 판매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봉사해주고 있다면서 거듭 장애인을 위해 도와주시는 여러 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박희상)

‘9일부터 밤 9시까지 관람 할 수 있다’

청남대 승용차 500대 진입, 사전예약자에 한함

속보 = 국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내 대통령 별장 청남대(관리소장·장화진, 원내 사진)가 대통령 역사문화관을 개관한 데 이어 승용차 소유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출입예약자(전화, 팩스 이용)에 한해서는 500대를 기준으로 청남대 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밤 9시까지 개장 시간을 연장 토록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까지의 음악회



도 열여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제한 시설

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충북 박희상)

청주동원택시(주) 새롭게 태어났다

자가 정비센터, 휴게실, 세차장등 갖춰



서원식
사장

100여대 가까운 법인 택시(주)동원택시(대표이사 서원식)는 친절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택시회사로 알려져 있다.

청주시 미평동에 위치한 전략원 택시를 인수경영하고 있는 서원식 사장은 종사원 후생복지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자가 정비

센터와 종사원 휴게실 세차장 등을 새롭게 갖추어 속 시원하게 넓게 자리 잡아 확 달라진 모습으로 꾸며 놓았다.

서원식 사장은 차량정비와 고객 친절에 최우선으로 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 동원택시 이미지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차

내 환경은 물론 상·하차시 ‘어서오십시오’, ‘안녕히가세요’하는 따뜻한 인사로 운전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데 힘쓰고 있다.

(충북 박희상)

목포 근대 문화유산 찾아서 지키고 가꾼다

문화유산 120여건 실태조사 후 활용방안 모색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의 시발점인 목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대문화유산을 찾아서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는 역사 속에서 시민들과 운명을 함께 했던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등 근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에서 근대도시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목포시는 근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호남은행목포지점, 구 목포공립심

상소학교 강당, 청년회관, 정명여학교 선교사 사택, 목포양동교회,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구 동본원사 목포보월원 등 근대건축물을 등목문화재로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근대건축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 동본원사 목포보월원은 2009년 9월 오거리문화센터로 개관하여 문화전시공간의 다목적 개방형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 청년회관은 연극공연시설로 새롭게 단장, 올해 4월 시립연

극단의 ‘잘자요 엄마’를 시작으로 남교소극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근대 역사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구 목포 일본영사관과 고 박화성 생가터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진행 하는 등 목포시민의 독창적 문화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목포시는『문화유산 분포지도』를 참고하여 국가, 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한 120여건의 문화유적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근대문화유산의 자료수집, 보호, 체계적 관리,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 이석호)